

우리 현실교육의 대안; 기독교교육

원동연(미국 DIA University의 이사장)

1. 우리 교육의 현실

구조적 불행을 유발하는 교육

우리 교육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학교에서의 성적이 어떠한가에 우리 학부모와 학생들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열심히 노력하면 성적이 올라가리라고 기대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열심을 다하지만 세상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해도 상위권이라고 하는, 100명중에서 10등 안에 들 확률은 10퍼센트 뿐입니다. 즉 대다수의 학생들은 상위권이 아닌 나머지 90퍼센트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만약 성적이 좋은 것과 행복하게 되는 것을 같은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질 확률은 10퍼센트뿐이고 불행해질 확률은 90퍼센트나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육의 목표가 만약 좋은 성적을 얻는데 있다면 오히려 우리 아이들 가운데 90퍼센트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편, 그리스도인들의 성적에 대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입시철이 되면 교회 안에서도 누구는 성공했고, 누구는 실패했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시험에 떨어진 것을 은연중에 '실패했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조차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아이들을 성적으로 평가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신앙 생활에 도움이 되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참석시키기를 주저하는 것도 그 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재직자의 자녀들도 많은 경우 예외가 아니라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국 성적 때문에 신앙 생활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셈입니다.

현실 교육의 약점

그 동안 우리 교육은 실력을 쌓아보겠다는 노력의 일환으로 공부 잘하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인간을 만들기 위한 전인교육은 뒷전에 둔 채 오로지 공부에만 주력하였다. 그 결과 박사도, 교수도 많이 만들었지만 학문의 대가를 만들지 못했다. 그 흔한 노벨상 하나 타지 못했다.

이러한 교육 현실을 볼 때 한국 교육의 대표적인 약점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학교 성적과 실력에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영어 성적은 높는데 실제로 영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역사 성적은 높는데 역사 의식이 없으며, 윤리 성적은 높는데 윤리성이 결여되어 있고, 체육 성적은 높으나 건강하지 않으며, 과학 성적은 높는데 과학적 사고 방식을 갖지 못한 실력 없는 사람들이 길러진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성적이 중하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실력을 쌓을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성적 위주로 가다 보니 학교에서는 상위권에 속하는 몇몇 사람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며, 성적이 나쁘면 성적 나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대접을 받기 어려운 지경까지 된다. 이렇게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니까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며, 실력을 쌓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악순환 속에서 공부 못하는 것이 불행한 삶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 실력있는 그리스도인

실력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신앙도 좋고 세상적으로도 성적이 높고 유능한 사람이라는 말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좋은 학생들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물론, 이런 학생들이 실력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교육을 통해서 신앙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들만을 인정하고 기대할 때, 그렇지 못한 많은 학생들이 받을 상처와 실망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진정 실력있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며 이런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3가지 시험

어떤 교육이든지 본질적인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것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3가지 시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국은 진리 안에서 항상 깨어 있지 못하면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로써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면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심판 날에 양과 염소로 나누는 기준은 바로 이웃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시험, 곧 바른 진리 안에 깨어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것과 이웃을 사랑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명령(막 12:30-31)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 안에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에게 나타났고, 그 사랑을 먼저 받고 알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아무리 작은 자에게라도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날에 열처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진리 안에 깨어 있는 것과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보여주는 이웃 사랑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두 가지 명령을 내렸는데 그 두 가지 명령의 준행 여부를 마지막 시험에서 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의미

두 번째인 달란트 비유의 중요성은 앞서 말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가지 명령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하지 못한 사람이 진리 안에 깨어 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자기의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하고 위로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하지 못한 사람은 진리를 분별하기 힘들고, 남을 사랑하고 위로하기보다는 사랑받고 위로받아야 할 처지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유능하고 많이 가졌느냐를 묻지 않고 자기가 가진 바를 얼마나 키우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열매로 나타냈는가,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했느냐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그러므로 실력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신앙 좋고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만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능력이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면 큰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자신의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바르게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면 모두가 실력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실력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 주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함으로써 성직의 굴레에서 벗어나 어떤 경우에도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3.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세 가지 원칙

제1원칙: 바른 방법론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달란트를 최대한으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열심히 노력만 하면 달란트가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적합한 방법과 원리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잘 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 개헤엄을 배운 사람이 밤을 새워가며 개헤엄을 아무리 열심히 많은 시간을 연습한다 해도, 체계적으로 자유형 수영을 연습해 가는 이들보다 수영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연습해도 개헤엄은 그저 개헤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실력을 올릴 수는 있어도 바른 방법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달란트까지가 아니라 행하고 있는 방법의 한계치까지만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수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맨 처음 시작할 때 학문이나 과목에 대한 원리와 특성을 처음부터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개헤엄 치듯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터득한 공부방법 만큼만 발전하게 되고, 본래 자기가 가진 능력의 최대치까지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앙 생활은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대부분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기독교적 원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열심히만 한다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열심을 내는 것에 앞서서 바르고 효과 있는 좋은 방법을 아는 것이 우선적이며, 이후에 이와 같은 방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제2원칙: 다면 교육을 해야 한다.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단지 공부문제에만 있지 않음을 곧 알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10시간 수업을 하고 오면 보통 10시간을 공부하고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10시간 중에 8, 9시간 정도 공부하고 온 것이고, 중간 정도 하는 아이는 5, 6시간, 아주 못하는 아이들은 비록 10시간 앉아 있더라도 2, 3시간도 못하고 옵니다.

왜 같은 10시간을 공부한다고 앉아 있는데 9시간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2, 3시간밖에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선 심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의지력이 약하고 동기가 없고 자기에 대한 자존심이 없기 때문에 그것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체력도 그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공부하려는 마음은 있는데 책상 앞에 앉기만 하면 졸리고, 여기저기 아프고, 그것을 견뎌낼 인내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관리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많은 시간이 주어져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학습방법이 나빠도 공부를 못합니다. 공부방법이 나쁜 아이들도 열심히 해봤는데 매번 결과가 신통치 않아 실망하고 상처가 되어 계속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잘할 수 없습니다. 부모한테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아이의 경우 거기에 대한 깊은 이해로 부모가 원하는 것을 안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과 교사 사이가 나빠지면 그 과목은 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 1 실력을 발휘할 수 없는 5가지 요인

심 력	체 력	지 력	자기관리능력	인간관계
꿈이 없음 의지력의 부족 부정적 마음 패배감, 열등감 반응력 없음	즐거나 번비 관절염, 요통 비염, 축농증 등	글 읽는 방식이 나쁨 지식운영능력이 없음 언어습득방식을 모름	시간관리능력 없음 우선순위 통제 못함	부모관계 악화 교사와의 관계 악화

그러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력이 약한 사람의 심력을 키워 주면 잘할 수 있습니다. 체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몸을 건강하게 해주면 잘할 수 있습니다. 자기관리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힘을 키워 주면 잘할 수 있습니다. 공부방법이 나쁜 사람에게는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고 익히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면 잘할 수 있습니다. 즉 심력, 지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를 전면적으로 키울 때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개의 나무 조각으로 만들어진 물통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물통을 이루고 있는 한 부분의 나무 조각이 부러져 버리면 아무리 물을 많이 부어도, 물은 이 부러진 나무 조각까지만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은 물통을 이루고 있는 나무 조각의 최소 높이까지만 채워지는 것입니다.(최소량의 법칙)

인간의 교육에 있어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간도 심력, 체력, 지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어느 한 가지가 약하면 그것 하나만 약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영향을 받아서 인간 전체의 능력을 제약시키고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시키려면 그 사람의 한 부분만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닌 여러 능력들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다면교육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면교육을 포기하고 지식이나 전문적 교육에만 치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면교육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전문교육에 별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면적 교육이 진정한 실력있는 전문인을 만들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최소량의 법칙에서 검토한 것처럼 만일 우리가 자신의 약점들(최소량)을 파악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달란트를 최대화시키는 근본적 방법인 것입니다.

제3원리 구체적인 커리큘럼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원론적인 내용들이 정립되었다 하더라도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원리들이 아무리 좋고, 충분히 공감한다해도 그 원리를 이룰 수 있는 커리큘럼(교육 과정)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공허한 외침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급훈이나 교훈 같은 것들로 정직, 성실, 사랑 등 추상적인 개념들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는 큰 소용이 없습니다. 정직이라는 교훈이 있으면 학생들의 교과 프로그램 중에 정직하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정직하게 살아라” 한다고 아이들이 정직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면적인 훈련이 아무리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외쳐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실천 가능한 25가지의 커리큘럼을 제시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심력, 체력, 지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력 등을 전인적으로 갖춘 인간상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지 력	심 력	체 력	자기관리력	인간관계력
코드번호 PCM01	코드번호 PCE01	코드번호 PCP01	코드번호 PCS01	코드번호 PCR01
지혜위주의 5가지 학습방법 1. 정보처리능력 2. 전체를 보고 부분을 이해하는 능력 (대법함과 세심함이 동시에, 넓으면서도 깊이가 있어야 함) 3. 추상적인 개념의 구체화 능력 4. 외국어능력 5. 자연세계의 이해능력	삶의 목표의식 확립 뜻, 꿈, 비전을 가짐, 미래 지향적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능력	효과적인 5가지 운동방법 익히기 1. 바른 자세 2. 부드러운 몸 3. 튼튼한 오관 4. 잘 배설하는 능력 5. 숙면하는 능력	시간관리 시간을 쓰는 곳에 마음이 있음. 적당한 양의 시간을 투입하되 질의 극대화 (우선순위), 시간의 재배열을 통해서 분주한 삶으로부터 해방, 여유와 심이 있는 삶. 때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	나와 나 나를 인간으로 보기, 인간의 가치성 확인, 자아발전, 자존감
1. 학문의 9단계(속해독서법 / 글분석법 / 글 감상법) 2. 고공학습법 및 상관관계 학습법 3. 개념심화 학습법 · 상황적용 학습법 4. 사고구조 변환학습법 5. 객관화·주관화 학습법	1. 일생고공표 작성 2. 3분 특성법(C type)	1. 신체구조 교정법 2. 독수제거법 (독수1. 소화되지 않은 것, 피로물질) (독수2. 스트레스) 3. 식사법 (적정한 양=과식 없음, 적당한 속도= 천천히 씹음, 적당한 음식= 물아서 먹지 않고, 간식을 절제, 채식 위주로 육식보충) 4. 효과적인 시간 사용법 5. 체력 고공표 작성	1. 생활리듬 확인법 2. 시간계획표 작성법 (일간, 주간, 월간, 연간, 일생계획표) 스케줄북 작성 (FDD 작성법) 3. 자유에너지 확장법 4. 일기쓰기 (내면세계의 기록 / 반성과 질문)	1. 자신의 장점, 단점 분석표 작성
코드번호 PCM02	코드번호 PCE02	코드번호 PCP02	코드번호 PCS02	코드번호 PCR02
약점위주의 학습능력 복습과정 약점피악 예습과정 약점피악	반응력 기르기 1. 슬픈 것을 보고 슬퍼하고 기쁜 것을 보고 기뻐하는 능력 2. 받았을 때 감사하며, 주었을 때 희열을 느끼는 능력 (책임감과 긍정적인 사고)	체력 증진을 위한 운동 및 최대 출력 운동	재정관리 재물을 쓰는 곳에 마음이 있음. 적당한 양의 돈을 투입하되 질의 극대화, 빛이 없는 재정운용, 우선순위에 따라 가치있는 곳에 집중투자, 낮은 우선순위에는 최대한 절약	나와 가족 가족을 인간으로 보기, 가족은 사회의 기본단위, 가족의 중요성, 부모 공경하기, 결혼관 (첫째, 영적 동일성과, 육체적 순결성을 가져야 함)
1. 약점목록표 작성법 2. 개념심화 학습법	1. 3분 특성법 (A type) 2. 개념 심화 학습법 3. 상황 적용 훈련법 3. 타인 격려법 (인사하기, 환호하기, 박수하기, 칭찬하기)	1. 체력증진 운동법(팔굽혀펴기, 다리굽히기, 윗몸일으키기, 몸통들어올리기, 물구나무서기) 2. 속도 훈련법 3. 한가지 스포츠 실천	1. 재정계획표 작성법	1. 가족의 장단점 분석표 작성 2. 가족의 미래 상상훈련법 (능력의 극대화) 3. 가족에게 편지쓰기 (E메일)
코드번호 PCM03	코드번호 PCE03	코드번호 PCP03	코드번호 PCS03	코드번호 PCR03
종합적 학습능력 학문간 연계성의 이해.	풍부한 정서력 기르기 좌·우뇌의 조화로운 개발 공부외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인식 상상력, 창의성, 영감	직업관	언어관리 내면적 가치가 언어로 나타남. 말하기 전에 듣기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함.	나와 동료 동료를 인간으로 보기, 동료 관계, 직업관, 팀웍의 중요성 이해 / 동료관, (1) 선택하는 것이며, (2)타인의 필요를 제공하는 것임
1. 상관관계 도표작성법 2. 창조적 사고 학습법	1. 예술활동 실천(한가지 악기 등) 2. 시쓰기, 그림그리기, 악기연주하기 경험 후 한가지 선택하기	1. 직업관리표 작성법	1. 살리는 말하기 2. 쉽고, 재미있고, 간결하며, 깊이 있는 말하기 3. 크지 않고, 높지 않고, 빠르지 않게, 그러나 활기차게 말하기. 4. 강의록 작성 및 3인 이상에게 프리젠테이션 하기	1. 동료의 장단점 분석표 작성 2. 동료에게 편지쓰기 (E메일) 3. 평생동역자 차트 작성 (5+5 시스템) *친구5, 적5
코드번호 PCM04	코드번호 PCE04	코드번호 PCP04	코드번호 PCS04	코드번호 PCR04
전문적 경영능력 자신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능력.	남 중심의 삶 비이기적, 솔선수범, 예의, 무례치 않음, 민주적, 공동체의의식	노동과 힘 힘과 안식을 통해서 내면세계를 바라볼 수 있으며 상상력,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고, 질서있고 규모있는 삶이 가능하다.	태도관리 개방성과 겸손함. 작거나 크거나 간에 내적 한계를 인식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힘. 인화·성김, 질서·충성, 열매·실천	나와 사회 불특정 이웃을 인간으로 보기, 개인과 집단의 상호관계 이해, 사회생활 적응력, 국가관, 공동체에서의 협동과 경쟁의 관계, 조직, 시스템
1. 컴퓨터 활용능력 2. 국제화 능력	1. 3분 특성법 (B type) 2. 상황적용훈련법	1. 주 1회 노동실천하기 (농사 등) 2. 주 1회 휴식의 날 실천하기.	1. 태도 관리표 작성	1. 사회의 장단점 분석표 작성 2. 시스템 훈련법
코드번호 PCM05	코드번호 PCE05	코드번호 PCP05	코드번호 PCS05	코드번호 PCR05
진리를 찾을 수 있는 힘 인생과 역사의 본질을 보는 능력, 핵심을 찾을 수 있는 통찰력 (역사의식, 가치관, 사상성, 진실)	지식의 내면화 능력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여, 행동으로 옮겨줄 수 있는 힘을 갖도록 도와 주는 것 지식을 의식화·조직화 시킬 수 있는 능력	바른 삶을 실천할 수 있는 힘 윤리성, 희망하고 정직한 삶, 이웃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삶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어려움 중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힘을 가짐	자기의 능력을 가지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힘 성취 성공이 아니라, 내적인 준비를 의미. 자신에게 감춰진 소질을 인식하고 자존감을 가지고 비로고 가치 있는 일을 하도록 함.	세계를 품은 다이아몬드 컬러의 인간 자신의 소질을 최대한 개발함으로써 타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다이아몬드 컬러의 인간상. 지도력을 갖는 것임. 지도력은 봉사심(사랑)과 정의감이 필요하다.
1. 컴퓨터 활용능력 2. 국제화 능력	1. 개념심화학습법 2. 상황적용훈련법	1. 실천관리표 작성법	1.성취감을 느끼는 진정한 적성을 찾는법 2. 자기관리력 측정표	1. 5차원 적용표 작성하기 (외면적/내면적 적용)

4. 다면교육은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한 유대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이 수백 가지가 되는데 이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 되는 것이 무엇이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인간의 5가지 요소(factor)를 찾을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2, 33절의 영어 성경을 인용하면 **"'Well said teacher,' the man replied. 'You are right in saying that God is one and there is no other but him. To love him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understanding and with all your strength, and to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is more important than all burnt offerings and sacrifices.'"**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다섯 가지 요소인 마음(heart), 지혜(understanding), 힘(strength),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자기관리능력(self-manegement),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관계(relationships)를 발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5가지 요소를 다 동원하여 다면적이며, 전인적인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다섯 가지 요소를 바로 교육하여 달란트를 최대한으로 계발시키고 발휘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마지막 날까지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만 다면적 교육이 가능함

달란트를 발휘하는데 가장 필요한 지력은 기독교 교육만이 줄 수 있습니다. 일반교육은 우리에게 지식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지혜를 줄 수 없습니까?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만이 진정한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지식을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교육한다는 것은 아울러 이 지혜도 길러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 깊이 알게 됩니다.

진정한 심력도 기독교 교육만이 줄 수 있습니다. 일반교육을 통해 우리는 풍부한 정서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남 중심의 생각'은 도덕적인 삶만을 통해서 얻어 낼 수 없습니다. 오늘날은 유난히 이기주의적인 경향이 쇠도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세태를 따르지 않고 이웃의 작은 아픔과 기쁨을 같이 나누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진정한 남 중심의 마음을 가진 뜨거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 악조건하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선교에 힘쓰고 구제에 힘써 온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체력도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은 다른 데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결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 변화됨으로써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성결하고 건강한 몸을 통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육체적 힘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육은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우리 자녀들의 달란트도 이를 통해서 최대로 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여러 방법에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전면교육으로 실력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길러 내야 하겠습니다.

성경적 교육원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육을 하면서 마음에 갖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교육이 세상교육에 비해 뒤진다고 걱정하는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교육의 방법이 세상교육에 뒤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론적으로 하나님의 교육이 세상교육에 뒤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교회교육이 세상교육에 뒤진다면 이런 교육은 기독교 교육의 모양을 가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기독교 교육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기독교 교육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교육에 뒤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현재의 기독교 교육을 잘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교육은 바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과 자연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육 또한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것이고 가장 뛰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대로 하는 것이고, 그 지침은 바로 성경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께서는 진정한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그는 가르치시고(teaching), 전파하며(proclaiming), 고치셨다(healing)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교사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육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교사로서 복음을 선포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 제자들이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선포와 가르침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이 같은 치유는 영적 치유뿐 아니라 육체의 병을 치유하는 것도 동반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은 ‘전파 - 원리를 알려주는 것’, ‘가르침 - 실천 가능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훈련하는 것’, ‘치유 - 삶의 방향이나 형태의 변화가 생기는 것’ 등의 세 가지 요소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실천하지 못하고 말로만 전하려는 교사들을 통해서서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 교육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의 달란트를 최대한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마음, 지혜, 몸, 자기관리, 인간관계의 다섯 가지 요소를 개발하도록 전면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달란트 교육(Talent Education)이요, 5차원적 전면교육(Five Dimension Education)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교육은 성령님에 의한 교육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진정한 전인적 변화와 치유는 인간들의 일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한 것이며, 우리 교육의 현장에서 성령님의 활동하실 자리를 남겨 놓아야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